

金文世의 장편 창가 <高麗寺歌> 연구

김종진*

<차례>

1. 머리말
 2. 망명객과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3. 文才와 작품의 창작 배경
 4. 내용구조와 문체적 특성
 5.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형상화의 거리
 6. 맺음말
- * 부록 <高麗寺歌>

<국문초록>

본고는 金文世(1894~1926)의 장편 창가 <高麗寺歌>를 발굴하여 소개한 글이다. 이 작품은 『불교』 제8호(1925년 2월)에 수록되어 있으며, 7.5조 창가로 총 376행 분량의 작품이다. 김문세는 1919년 기미독립운동 당시 정주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한 우국지사이다. 일제의 추적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한 그는 독립신문의 기자 신분으로 항주에서 『사고전서』를 열람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항주에 있는 高麗寺를 방문하고 느낀 바를 기본 틀로 삼고,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관련 유적지를 낱말이 활용하여 <고려사가>를 창작하였다. 작품에서는 또 高麗寺를 중창하는 데 역할을 한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행적을 따라 중국을 종횡하는 긴 여정을 사료에 의거하여 형상화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한편, 행간에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7.5조 창가가 외래의 사조나 신세계의 문명을 찬양하는 초기의 모습을 벗어나 항일지식인의 내면적 리듬으로 수용 정착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 동국대학교

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 작품을 매개로 하여 당시에 한국과 중국 간에 고려사를 증언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던 양상이 당시의 잡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일제치하 한중 우호협력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도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 김문세(金文世), 김진각(金鎭珪), 고려사(高麗寺), 고려사가(高麗寺歌), 의천(義天), 창가(唱歌), 7.5조, 경부철도가, 망명자문학

1. 머리말

본고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다가 30세에 요절한 金文世(1894~1926)의 장편 창가 <高麗寺歌>를 소개하기 위한 글이다. 이를 위해 작가의 소개와 작품의 창작배경, 구성과 장르적 성격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개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고려사가>는 “金秋溪 원저, 金素園 抄寄”로 『佛敎』지 제8호(佛敎社 간행, 1925년 2월)에 수록되어 있다. 형식은 7.5조 1행으로 하여 총 376행 분량의 장편 창가로서 국한문 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장편 7.5조 창가의 대표적인 가요는 최남선의 <경부철도노래>(1908)와 <세계일주가>(1914)가 있는데, 이 시기의 장편 창가는 내용적으로는 근대문명을 예찬하고 새 시대의 희망을 노래하는 경향이 있다.¹⁾ 이에 비

1) <경부철도가>와 관련된 논의로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병선, 『한국개화기창가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0.

이주열, 『『경부철도노래』에 나타난 긍정의식 연구』, 『우리어문연구』 v.35, 2009.(pp.545~574)

해 <고려사가>는 내용상 기존의 창가와 사뭇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작가는 高麗寺를 중창하는 데 역할을 한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행적을 따라 중국을 중흥하는 긴 여정을 사료에 의거하여 형상화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한편, 행간에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7.5조 창가가 외래의 사조나 신세계의 문명을 찬양하는 초기의 모습을 벗어나 어느덧 한국인의 내면적 리듬으로 수용 정착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발굴은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학계에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신자료 소개의 성격은 물론이고, 지역만리에서 유랑하다가 이제는 구천에 떠돌 그의 넋을 학문적으로 위로하는 의의도 지니게 될 것이다. 작품에 점철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적 정보가 작품 이해에 난관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독립운동가의 망명자 문학으로서, 역사교본 창가로서 작품의 소개는 나름대로 의의를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미리 밝히건대 작품에 등장하는,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조선에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정보에 대한 사실성 판단과 이에 담긴 작자의 역사인식에 대한 평가는 본고에서 다 해명되기 어려우며, 앞으로 역사학계의 도움을 기대하는 바이다.

2. 망명객과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김추계(金秋溪)의 본명은 김진각(金鎭珪) 혹은 김문세(金文世)이다. 그가 상해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을 때 <독립신문>에 실린 애도사(「金文世君을 弔唁」, 『독립신문』 1925년10월21일자)는 그의 일생을 조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를 토대로 하고 다른 신문기사, 독립운동사 자료를

최현식, 「철도창가와 문명의 향방 -그 계몽성과 심미성 교육의 한 관점」, 『민족문학사연구』 v.43, 2010.(pp.189~221)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일대기를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김문세는 1894년 10월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다. 본적은 평안북도 정주 馬山面 院東洞 12번지다. 본명은 김진각(金鎭珪)이며 異名으로 金文世를 사용하였으며²⁾ 호는 秋溪이다. 정주에 있는 光東學校를 졸업³⁾한 그는 청년문사로 한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기미독립운동(1919) 당시에 인근 각 郡의 동지를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이어 南滿州에 있는 독립단과 연락하여 군자금을 모으고 동지도 일으키는 활동을 하였다. 이 때문에 일제의 추적을 받게 되고 피신 생활을 하며 갖은 고초를 다 겪게 된다. 그는 장기간의 피신생활에 차라리 해외에 나가 마음대로 활동하리라는 다짐을 하여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를 목적으로 하여 노모와 처자를 뒤로 남기고 망명길에 오른다. 그는 상해에서 漢學을 연구하기도 하고, 중국인이 경영하는 四民報館에서 기자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약 3년 간 독립신문사에서 기자생활도 하고, 일일인서관(一一印書館)에서 인쇄술도 연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는 또 역사학에 뜻이 있어 본국의 역사 기술이 완전치 못함을 개탄하였는데, 독립신문사에서는 그를 杭州 특파원으로 보내어 『사고전서』의 본국 역사자료를 수집하게 하였다. 그는 본사로 돌아오는 즉시 독립신문사가 후원하는 교과서편찬회의 일원이 되어 낮에는 인쇄술에 전념하고 밤에는 편찬회에 출석하여 노력을 하며 틈틈이 한 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이 바로 『西遊記中高麗寺歌』이다.⁴⁾ 이 책은 독립신문사에서 후원하는 교과서편찬회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임시정부의 역사 대안 교과서로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편찬회는 재정문제로 유지가 어려워 더 이상의 활동은 하지 못하였다. 1924년 가을에는 중국의 명승과 고적을 찾아 무전여행에 가

2) 「포상자 공적조서」-독립기념관 제공. 이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참고하였다.

3) 『황성신문』 잡보란(1908.7.16(양력)).

4)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고려사가>의 저본이 된다.

운 주유를 하다가 도중에 병을 만나 상해로 돌아왔다. 상해에서는 여러 동지들의 주선으로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1925년 6월 20일에 작고하였다. 사망 당시 그의 신분은 독립신문사의 贊助社員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가 독립신문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1922년경이다. 그의 시국관은 논설 <救心論>(『독립신문』 제123호. 1922.4.15)과 <國恥日の解説>(『독립신문』 제138호. 1922.8.29)에 잘 드러나 있다.

1921~1923년경에는 中韓互助社 上海總社에서 간사로 활동하였다. 한중 두 나라에서 각각 8명의 이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이 기관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한중우호협력기관의 성격을 지니는데, 여기에는 金奎植, 呂運亨, 申翼熙 등의 이름과 함께 김문세의 이름이 보인다. 그가 이 시기에 상해 중한호조사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기록이 일본의 ‘不逞鮮人’, ‘不逞團’에 대한 감찰보고서에 수차례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활동의 성격과 일제 감시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⁵⁾

1923년 3월 1일에는 기미독립운동을 기념하여 항주의 고려사에서 만세운동을 거행한 사실이 당시 신문에 소개되었고,⁶⁾ 같은 해 10월 4일자 동아일보에는 당시 조선의 홍수 피해에 대하여 상해에서 발기한 內地同胞水災救濟會의 일원으로-呂運亨 金九 등과 함께- 기부 동참한 사실이 소

5) <재상해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상황>(高等 제28729호 - 1921.11.7(朝鮮獨立運動』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35)不穩文書入手에 관한 건> -1923년 02월 19일.

<不逞團關係雜件-鮮人の 部-在上海地方(3) 上海在留 朝鮮人 現在人名簿 調製에 관한 件> -1921년 09월 28일.

<不逞團關係雜件-鮮人の 部-在上海地方(4)高警 제3159호> - 1922년 10월 05일.

<不逞團關係雜件-鮮人の 部-在上海地方(5)中韓國民互助社 總社 規則에 관한 件> - 1923년 08월 10일.

<不逞團關係雜件-鮮人の 部-在上海地方(5)中韓互助社 定期總會 開催의 件>-1923년 09월 12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6) 中國 杭州에 在하던 我同胞 金文世等 十四人은 지난 三月一日 同地高麗寺(前我國 文宗王의 子 義天이 修道하던 遺跡)에 모혀 獨立宣言紀念式을 舉行하였더라(<독립신문> 158호, 1923.3.14)

개되어 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 『독립신문』 부음 기사(1925.10.21)에는 “君의 鄉里에는 堂上에 六旬偏母가 계시고 아래로 妻君과 孤兒가 있으니 訃音을 接한 그네의 哀痛이 엇더하랴 슬푸다 君이여”라 하여 애절한 만사를 전하고 있다.⁷⁾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가 3.1운동에 참가한 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 정부에 가담하였고, 3년간 독립신문사 기자 신분으로 상해와 항주에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하여 1990년에 국민훈장 愛族章을 서훈하였다.

3. 文才와 작품의 창작 배경

김문세가 “한학에 달통한”“청년문사”라는 소개와 상해에 망명하여 “漢學을 더 연구”하였다는 점, 그리고 독립신문사 항주 특파원으로서 『사고전서』 중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였던 점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는 단순한 文士가 아니라 역사와 문학 등 전통적인 學問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우국지사로 생각된다.

그가 쓴 논설에서는 또 다른 문학적 재능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논설 <救心論>(『독립신문』 제123호. 1922.4.15)은 망국의 상황에 대처하는

7) 이와 함께 부고 및 추도시가 함께 게재되어 있다. 추도시를 소개한다. 「金文世兄님의 訃音을 밧고」(독립신문 제187호. 1925.10.21)

兄님의 訃音이 이 귀를 놀래고
가슴속 김피김피 뿌리를 막으니
그 엄이 자랄수록 쓰라리외다
熱烈한 마음과 眞實한 行實은
뉘게 다 맞기고 이 손을 못나요
苦海의 中途에 沙工을 일흐니
덕이여 이 손을 힘껏 잡아주소서
음八月八日夜 滿野에서
솔뵈

사람들의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자세를 殘忍派 誤解派 混沌派 依賴派 買笑派 吝嗇派 落心派의 일곱 부류로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이 매우 선언적이고 거센 파도 같은 기개를 느껴볼 수 있다.

以上 七派난 우리와 서로 消長되야 彼衰하면 我興하고 彼興하면 我衰하리니 우리가 興함에난 三千里江山에 無窮花 피고 二千萬生靈에 榮光을 돌리려니와 더가 興하면 國墟난 반다시 猶太의 沙漠에 돌아가고 民族은 組上에 肉이 되고 말지니 엇지 두렵고 무섭지 안으리오 그러면 우리는 倭놈과 奮鬪함보다도 몸져 더들과 宣戰하야 一舉剿滅한 後에야 우리의 事業을 完全이 進行할가 曰 不然하니 우리와 더가 溝分하야 對壘한 것이 안이요 오직 方寸의 사이에 마음이 죽고사는 것으로써 彼我라 定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瞬息間에라도 彼가 我的 寶座에 드러오기 容易하고 我가 또한 彼の 魔穴에 빠지기 쉬우매 往來가 錯綜하니 一定한 敵이라고 指摘하야 剝燒春磨를 加할 餘地가 업을 것이다 그러면 非常한 이때를 當한 우리 自醒自警하야 心을 死지 아니하고 우리의 神聖한 地位를 保存하며 相愛相勸하야 軋轢의 嫌을 舍하고 團結의 體를 堅固이 하여써 勇往前進하면 彼の 七派난 自然히 同化될 것이며 怨讎의 日人들은 반드시 우리의 압해 白旗를 懸할 줄노 思惟하노라.

인용문은 논설의 결론 부분으로서, 일제에 대항하는 정신적인 자세로서 마음을 구하면 언젠가 일본 원수들이 우리 앞에 반드시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國恥日의 解說>(『독립신문』 제138호. 1922.8.29)은 8월 29일 국치일을 맞이하여 그 아픔을 토로하고 조선민족의 시대적 사명을 설파한 글이다. 이들 논설은 모두 비분강개한 목소리를 표출하면서도 사태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설득력이 돋보이는 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논설에서는 김문세의 문학적 이력과정도 단편적이거나 살펴볼 수도 있다. “圃隱이 曰 이 몸이 죽고 죽어, 千百番 다시 죽어, 白骨은 塵土가 되고, 魂은 잇스나 업스나, 님 向한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 잇스랴 하여시니”(〈구심론〉)라는 구절과 “白頭山石磨劍盡 豆滿江水飲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 이 글을 南怡將軍이 東敵을 殲擊할 時에 지으신 것이니 記者가 어려슬 적부터 嗜吟하던바 從後난 病床을 快離하야 禿毫을 投하고 다시 長劍을 杖코져 하노라”(〈국치일의 해설〉)하는 대목에서 김문세가 한시, 시조 등 제반 시가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아마도 전통적인 한학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동시에 동광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신문사의 기자로서 시론을 발표하는 등 근대적 문사로서 재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통적인 지식인이 그랬던 것처럼 시조라든가 한시 등을 즐겨 외웠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전통적 시가에 대한 조예는 물론이고 당대에 새로 등장하는 창가형식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리듬을 체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온축과 역사에 대한 지사적인 관심, 그리고 문학적 능력은 결과적으로 필생의 역작이라 할 만한 <고려사가>의 창작 기반이 된다.

<고려사가>가 실려 있는 『불교』 제8호에는 金秋溪가 창작한 작품을 金素園이 초록하여 투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일대기를 통해 보듯이 대각국사 의천이 중창불사를 한 항주의 고려사에서 행한 망명객의 독립운동은 본고의 연구대상인 <고려사가>가 단순하게 대각국사 의천을 현양하려는 호고적 유람 창가가 아님을 감지하게 한다. <고려사가>에서 고려국사 의천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그가 당시에 기자의 신분으로 조선의 역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것이 넓게 보아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창작동기와 의의에 대해서는 이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김소원의 글에서 대략을 파악할 수 있다.

中國 南方 杭州에 있는 고려사는 拒今 팔백삼십팔년(고려 宣宗 2년)에 고려 文宗의 第四子 義天大師가 宋 晋水師淨源으로 더불어 佛學을 연구하던 곳

이라 該寺는 원래 慧因寺라 하더니 의천 대사가 거액의 資産으로 重建하고 金字華嚴經 삼백부를 藏置한 고로 高麗寺라 칭하게 되었스니 아즉도 破屋數棟이 존재하여 이역산하에 고려의 名蹟이 罔연히 遺傳함은 우리의 고려 사람으로 늦김이 없지 못하다. 杭州도서관에서 四庫全書를 열람하여 우리에게 관계되는 역사자료를 구하기에 근로하시는 秋溪 金선생이 民國 4년 8월에 杭州 西湖 南高峰 下에 있는 고려사를 유람하고 高麗寺歌를 작하니 그 편찬이 순전히 歌曲만 吟詠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반만년 역사의 참고자료를 풍부하게 搜輯하여 歌曲을 注釋하였스니 이것이 장래 우리 史學의 참고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해외에 殘餘한 古蹟을 일반 동포에게 소개하여 이 高麗寺를 다시 重修할 善心家가 興起하기를 희망하며 조선불교의 가장 중대한 覺悟로 선조의 舊蹟을 繼續하여 大覺國師의 도덕과 고려의 聲名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誠心에서 이 歌를 抄하여 조선불교계에 供하오니 一覽하와 참고하심을 영광으로 自信하는 바이외다.

(高麗寺歌의 注釋은 매우 필요한 역사자료이나 紙數가 甚多함으로 倉卒에 抄하지 못하였스며 과거 융성시대의 寺刹圖形도 잇스나 模寫치 못하오니 遺憾으로 自愧하나이다.) 抄者 識

이는 일종의 ‘작품 소개의 변’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르면 이 작품은 항주도서관에서 『사고전서』를 열람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을 조사하던 작자가 民國 4년(대한민국 임시정부 4년)인 1922년 8월 항주 서호 남고봉 아래에 있는 고려사를 유람하고 고려사를 창작했던 정황이 소개되어 있다. 고려사는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義天대사가 중국에 건너가 晋水 淨源대사와 함께 불학을 연구하던 곳이다. 절의 이름은 원래 慧因寺였는데 의천대사가 거액의 시주를 하여 중건하고 金字화엄경 300부를 안치하였던 인연으로 고려사라 부르게 되었다. 작자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거의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는 비감어린 목소리로 고려사의 지세와 당대의 의천의 행적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인용문에서는 원래는 각각의 역사적 기록에 대한 상세한 주석풀이가 첨부되어 있고, 고려사의 “과거 융성시대의 寺刹圖形”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면 관계상 다 수록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⁸⁾

8) 잡지에는 “항주에서 嚴一波씨의 手寫 「昔時의 高麗寺」라 한 모사도가 있다. 이는

김추계 곧 김문세가 이 작품을 제작한 이유는 단순히 고려사를 보고 비감에 젖어서만도 아니고 또 의천대사의 행적을 다시 복원하고자 한 의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언론가로서 역사가로서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사고전서』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 기록들을 통해 복원하고 있고, 376행의 장편 창가의 각 구절마다 상세한 역사적 전거와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歌曲을 注釋”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해외에 산일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사적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역사교과서를 집필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추계 김선생의 <고려사가>는 1927년 경 『불교』지를 중심으로 韓中間에 고려사 복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한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⁹⁾

4. 내용 구조와 문체적 특성

1) 내용 구조

작품은 화자와 목동이 등장하여 묻고 답하는 문답식 구조로 되어 있다. 폐허가 되어버린 항주 고려사 앞에서 그 이유를 묻는 화자의 물음(서사, 1~10행)과 이에 대한 목동의 답변(본사, 11행~346행), 그리고 이에 대한 화자의 감상(결사, 347행~376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화자는 서사에서 아름다운 풍수를 배경으로 한 움막집을 바라보며 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속절없이 경치만 훼손하는지 묻고 있다.(1

아마도 明代의 「慧因寺山圖」 「高麗寺圖」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9) 이때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의 글이 있다.
高麗寺의 位置說明(『불교』 제8호. 1925.2, p.52)
杭州高麗寺重建籌備에 對하여(『불교』 제31호. 1927.1, pp.78~81)
中朝佛敎紀念道場 西湖高麗寺(『불교』 제31호. 1927.1, pp.80~81)
西湖高麗寺重建發願文, 高麗寺重建施主芳名(『불교』 제31호. 1927.1, p.82)
高麗寺重建籌備會續報(『불교』 제33호. 1927.3, pp.47~48)

행~10행)

- 1 南高峰 奇麗하고 箕泉맑은데 2 檀葉이 長茂하니 그림 속 靑邱
- 3 乾脈出震 天君이 下臨하싯고 4 西湖十里 水明堂 廣濶하도다
- 5 靑龍이 蜿蜒하고 白虎踞蹠에 6 綵雲이 瓏玲하니 分명한 仙境
- 7 「못노니 牛背上에 吹笛童子야 8 저 건너 便松柏 새 處한 움집은
- 9 尼氏의 所有이며 무삼 生意로 10 속절업시 山景만 汚損하난지」

서두에서는 전통적인 역대가류나 풍수가사에서 보이는 서두의 진술방식과 마찬가지로 원경에서 근경의 순으로 지세를 묘사한다. 즉 주산 좌청룡 우백호 물줄기 등을 통해 명당자리를 드러내는 방식을 동원하여 이곳의 풍경을 “그림 속의 靑邱”로 규정하고 있다. 靑邱는 곧 조선의 이칭이며 자연스럽게 고려사가 있는 공간은 조선의 역사를 환기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한다. 南高峰, 箕泉, 西湖는 고려사가 위치하고 있는 실제의 봉우리와 연못 호수의 이름이며, 묘사에 동원된 박달나무, 편송백 등도 작자가 실제로 보이는 대상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箕泉의 箕는 기자조선의 箕子를 연상시키며 檀葉의 檀은 檀君을 연상시키는 중의적 표현인데, 이를 통해 고려사 터의 공간적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부여하고 있다. 화자가 궁금해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선경가운데 풍경을 해치는 불쌍사나운 움막집인데, 사실 이는 高麗寺를 가리키는 것이다. ‘高麗(寺)의 역사와 위상은 본사에서 목동의 답변을 통해 구체화된다. 미리 말하자면 산자수려한 배경이 “靑丘”라는 점에 비추어 움막집 곧 고려사는 주권을 잃고 만신창이가 된 조국, 그러나 위대한 역사를 지닌 ‘고려’를 대유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지닌다.

본사는 336행에 해당하는 분량에 고려사를 둘러싼 의천의 행각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씨줄 날줄이 되어 서술된다. 작자는 『사고전서』의 수많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술하려 했던 것인데, 이를 목동과의 문답을 통해 문답식으로 구성한 것은 목동문답가류의 형식을 원용하여 전달력을 높이고자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사의 처음과 마무리 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1 이 말 드른 童子는 저새 던지고 12 썩근 낮 큰 소래로 왈각 性내며
- 13 「버릇업다 客이여 精神차리오 14 그 집 歷史 仔細히 告命하리다
- …(중략)…
- 341 一千九百十九年 新氣運 타서 342 申睨觀上額으로 看板달니매
- 343 그 名을 恢復하니 곳져집이나 344 外樣이 흥축하고 안이거즈니
- 345 당신가치 不關한 行人의게도 346 空然한 無禮를 그져밧아요」

본사에서 ‘그 집 역사 자세히 알려주겠노라’라는 표현에 걸맞게 긴 분량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상세한 고증과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고, 1919년에 신예관이라는 인물이 편역을 다시 달아 복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쇠락하여 공공연한 오해와 무례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짧은 서사와 화자(작자)의 감상을 드러내는 결사를 제외한 방대한 분량의 본사가 작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사의 내용을 대별해 보면 크게 다음의 세 단락으로 묶여진다.

- I 단락 : 해동국 명칭에 대한 典故와 의미 부여(15~30행)
- II 단락 : 중국의 역대왕의 해동과의 인연과 그 역사-고대와 中古시대 고려국의 문명(31~66행)
- III 단락 : 대각국사 의천의 발자취와 高麗寺
- III-1장 : 개성 출발부터 송 임금의 환대까지(67~126)
- III-2장 : 중국의 총림 유람 청원 후 답사 과정(127~288행)
- III-3장 : 진수 대사 참방 이후 항주에서의 활동(289~328행)
- III-4장 : 청 건륭이후 고려사의 내력과 현재의 상황(329~346행)

본사의 I 단락은 영토국(嬴土國) 금은국(金銀國) 해양국(海王國) 대인국(大人國) 군자국(君子國) 보화국(寶貨國) 예의국(禮義國) 봉래국(蓬萊國) 대보국(財寶國) 등 “고려국”의 다양한 이름을 소개하고 유래를 소개하여 자랑스러운 물산과 산자수명한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본사의 II단락은 “아름다운 그 나라 강산의 풍경 사람마다 일유를 평생 원일세”로 시작한다. 이는 본문서술의 시각을 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기자(箕子), 공자[仲尼], 현원씨(軒轅氏), 도당씨(陶唐氏), 공공씨(共工氏), 하우(夏禹), 서불(西佛), 건축(建族), 양강공(楊康功)과 창힐(蒼頡), 울종배(蔚宗輩), 일본(日本), 대금(大金), 오월왕(吳越王), 송나라, 숙신씨(肅愼氏) 등이 등장한다. 이는 고대에서 “中古”시대에 이르는 동안 각각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과 가졌던 중국 측의 역대 인물을 소개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다양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본사의 III단락은 본격적으로 대각국사 의천의 발자취와 高麗寺의 내력을 소개한 부분이다. 본사 III-1,2,3장은 일단 의천의 행적을 순서대로 기술한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사 III-4는 청 건륭이후 고려사의 내력과 현재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1919년에 신예관이라는 인물이 편역을 다시 달아 복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쇠락하여 공공연한 오해와 무례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작품을 기술하는 현재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결사에는 목동의 설명을 다 들은 화자가 반가운 심정으로 고려사에 들어갔으나, 초라한 고려사의 내부를 확인하고는 반가움과 서러움이 교차한다는 내용, 이 정경을 광고하면 우리 민족이 다 귀의하여 시주하리라는 기대, 그리고 언젠가는 옛터에 화엄고각을 다시세우고 한켠에 치워져있는 고려 임금의 소상을 다시 봉안하리라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다짐은 불교사의 관심을 이끌어 이후의 중창불사 운동이 『불교』에 소상히 소개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2) 문체적 특성

한국문학사에서 7.5조 장편 창가로 최남선의 <경부철도노래>(1908)와 <세계일주>(1914)를 들 수 있다. 7.5조 율격은 근대에 새로 등장한 외래적 리듬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용 역시 근대문명의 예찬과 새 시대에 대한 무비관적인 희망을 노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7.5조 창가는 외래적 가요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논의에서는 7.5조 창가의 시초가 된 작품으로 최남선의 <경부철도가>를 들었으나, 최근에는 그 이전의 작품에서도 같은 율격의 시가가 발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1908년 학부에서 편찬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에는 7.5조 창가로 <漂母> <移秧>이 수록되어 있고, 1910년에는 이들 노래를 포함하여 다수의 창가를 모아 『보통학교 창가집 제1집』(학부)을 출간한 바 있다. 7.5조 창가 형식은 최남선의 창안한 형식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새 시대의 희망을 담고 있는 장편 창가로서, 근대적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반영하는 장편 창가로서 <경부철도가>는 일정한 문학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¹⁰⁾

전통 시기에 외부세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이념을 곡진하게 서술하여 지식을 공유하며 독자를 설득하려는 교술지향적 장르로는 歌辭 형식이 활용되었다. 가사는 초기에는 3.4조 위주의 서정적 가요를 주로 하였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장르에 내재된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하여 서정적, 서사적, 교술적 내용을 담은 장편의 가사가 여러 줄기로 파생되었다. 여기에 역사와 지리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역사가사 풍수가사 등이 있으며 이념적 교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종교가사가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적 체험, 특히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여행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이를 가사화한 작품이 다수 출현하게 된다. 여기에는 물론 새로운 근대적 풍토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대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고려사가>는 이러한 교술적 가사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역사적 정보에 대한 풍부한 자료조사와 진술, 과거와 현재의 지리적 정보의 진술, 이를 통해 역사교육의 교과서로 활용하려 한 측면에서 일종의 역사 교본가사, 기행가사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작품은 전통의 4.4조 리듬이 아니라 7.5조 리듬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비록 7.5조가 3음보라는 전통적인 율격

10) 권오만, 『개화기시가연구』, 새문사, 1989, pp.165~171.

의 변형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일정부분 아직도 외래적 리듬으로 평가받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4조가 담고 있는 지식의 총량과 7.5조가 담고 있는 지식의 총량을 비교해 볼 때 전통시기에 비해 지식의 총량이 과도하게 넘쳐나는 근대의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데 7.5조 리듬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기에 더욱 적실한 리듬이었을 것은 분명하다.

3음절이나 4음절을 주로 한 4음보 율격의 가사는 전통적으로도 종교, 이념, 역사, 풍수 등 객관적인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데 아주 요긴한 장르로 활용되었다. 근대에 창가가 확산되자 7.5조 율격을 활용하여 가사에 담았던 다양한 객관적 지식 정보를 담아내는 시도를 최남선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편 7.5조 창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장편 창가는 작품의 등장과 함께 문학사적인 의의가 사라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래적으로 평가받았더라도 근대적 지식의 총량을 담기 위해 새롭게 활용된 7.5조 창가 형식의 작품에 대한 자료의 관심과 그 의의를 찾아내는 일은, 일종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의 다층적 문학현상, 문화현상을 통찰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경부철도노래>는 7.5조가 하나의 완성된 율격으로 자리 잡으면서 창가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 작품이다. 출판 상황을 보면 이 작품은 1908년에 초판, 1909년에 재판, 1910년에는 3판이 간행되었다. 당대의 독자들의 호응도를 보면 이 작품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작품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각 지역의 역사 지리 풍물 등을 소재로 지어진 일본의 철도창가의 영향을 받아 이 작품 역시 같은 내용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남선은 이 작품의 서두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남방편의 지리 지식을 준다’는 의도를 직접 표명하고 있다. 일종의 역사, 지리 교재로서 교육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 것이다.¹¹⁾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고려사가>의 내용과 제작 의도 등에서 <경부철도노래>의 그것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일본에서 유행한 철도창가의 전통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고려사가>는 형식적으로는 7.5조의 리듬이 근대지식인의 글쓰기 방식으로 내면화되는 단계의 작품이며, 망명자문학으로서 디아스포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작품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작품은 7.5조 창가가 지녔던 외래사조에 대한 무비판적인 선호나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작품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찾기 어려웠던 그 동안의 관점을 벗어나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명분을 제공해 준다 하겠다.

5.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형상화의 거리

<고려사> 본사의 III단락은 의천의 행적과 작품의 형상화 사이에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의천의 일생을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각국사 의천은(1055~1101) 고려 文宗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영통사에서 학문에 전력하였다. 13세에는 호를 祐世라 하고 僧統이라는 관직을 받았다. 의천은 불도를 탐구하기 위해 송나라에 유학하고자 하였으나 당대 국제관계의 정황으로 당시 임금인 宣宗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대신 그는 송나라 상선 편에 서신을 전하여 당대 화엄종풍을 선도하던 淨水 淨願대사(1011~1088)에게 제자의 예로써 친교를 맺었다. 의천은 1085년 4월 초파일, 선종과 모후인 인에 태후에게 서신을 남긴 후 수개 등 두 제자만 데리고 예성강을 출발하여 밀행에 나선다. 5월 2일 산동지방 密州 땅 板橋鎮에 도착하여 송나라 황제인 哲宗에게 구법의 내력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후 황제와 왕후로부터 환대를 배려를 받으며 접빈사의 안내로 송나라 수도 汴京(현재의 開封)에 도착한다. 이후 황제에게 항주에 있는 정원법사를 만나 뵈고자 간청하였고 황제는 主客員外郎 楊傑과 함께 가도록 주선하였다. 당시 北宋의 수도 변경에서 항주까지는 약 4천여

11) 김병선, 『한국개화기창가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0. pp.144~148.

리였는데, 대사는 변경에서 동남쪽 바다로 통하는 번강을 통해 물길로 남쪽의 절강성 항주에 이르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정원대사에게 참학하여 화엄교학을 전수받았고 정원법사와 헤어진 후에는 절강성 천태산의 천태지자탑에서 천태교학의 전법을 서원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화엄 중창이었던 정원법사의 慧因院을 증창한 일이다. 국사는 송나라 참방 당시에 증창했을 뿐 아니라 귀국 후에도 황금 2천냥과 金字화엄경을 보내 증창을 도왔다. 정원법사는 이를 기반으로 장경각을 세워 경을 봉안하였고 속칭 高麗寺라 부르게 되었다. 이때 국사의 도움으로 재건된 고려사의 규모는 대웅전, 輪藏殿, 天王殿, 妙應殿, 千佛閣, 華嚴經閣, 七祖堂, 伽藍堂, 高麗祠, 鐘樓, 碧鮮閣, 禪堂, 삼영(三楹), 香積, 연못 등 방대한 규모였다.¹²⁾

본사의 Ⅲ-1장과 Ⅲ-3장은 예성강에서 밀행하여 산동성 밀주의 판교진에 도착하고 강소성의 海州를 거쳐 당시 송의 수도인 변경에 이르는 과정, 바닷길을 따라 항주에 이르는 과정과 진수대사에게 참학하여 화엄교의를 닦고 화엄경을 기증하여 고려사로 증창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흥성하게 된 고려사의 광경을 차례대로 기술하였다.

Ⅲ-2장은 의천이 宋 임금에게 중국의 총림을 유람하겠다고 청원한 후 답사하는 과정이 길게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경로는 실제의 경로와 다른 작가적 상상력이 반영된 경로로 되어 있고 기술의 내용 역시 의천과 굳이 연결시킬 수 없는 다양한 역사 지리적 정보가 삽입되어 있다. 여기에서 의천의 행로와 작가의 기술 행로에 큰 차이가 드러난다.

실제의 경로와 작품에 나타난 경로를 대비하기 위해 의천이 송나라에 들어간 노선도를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포자성의 『高麗寺與高麗王子』¹³⁾에 소개된 <義天入宋路線圖>를 보면 경로가 [개성 (예성강) - 密州 板橋 鎮(산동성) - 海州(강소성) - 汴京(하남성, 지금의 개봉) - 宿州(안휘성)

12) 심재열 역, 『대각국사문집』(통화사상연구소, 1985)와 『고려사』 제90권 열전 <大覺國師 熙>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고려사가>에 소개된 고려 문종의 소상은 대각국사 의천의 소장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13) 포지성, 『高麗寺與高麗王子』, 항주대학출판부, 1995. p.94참고. 이와 함께 고려사와 관련된 여러 역사와 최근의 고려사 복원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글로 포지성, 고려사와 대각국사 의천, 『천태학연구』 제8집, 2006.(pp.207~240)을 참고.

- 揚州, 鎮江, 嘉興- 杭州(절강성)-臺州-明州-개성]의 순으로 파악된다. 약간의 왕복 여정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개성에서 가장 가까운 산동성에서 강소성을 지나 송의 수도인 하남성에 이르며 여기에서 다시 물길 쪽으로 나와 안휘성을 통과하여 절강성 항주에 이르는 여정으로, 당시 교통상황을 보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를 택하여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도를 소개하는 대신 간략하게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성→	산동성 (판교진)	강소성 (해주)	하남성 (변경)	안휘성 (숙주)	절강성 (항주)	→개성
-----	--------------	-------------	-------------	-------------	-------------	-----

이 가운데 수도인 변경에서 환대를 받고 항주로 내려가는 실제적인 행로는 하남성-안휘성-절강성의 경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고려사가>의 Ⅲ-2장에서는 의천이 송나라 황제에게 환대를 받고 총림을 유람하기를 청하였고, 이후 주객랑 次工으로 향도를 삼아 “秦趙齊魏韓楚燕”를 답파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작품에서 순서대로 등장하는 경로와 구체적인 지명, 역사적 사건과 유적을 일별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고려사가>(Ⅲ-2장)의 경로와 기술 내용

지역별 순서↓ (시작 행수)	지명과 관련된 유적, 인물, 사건
하남성(131행~)	汴京城-箕子碑(유종원의 서문) 王卿의 사적-滎陽 壽州 杞縣은 동이족 禹裔
산동성(141행~)	李正己 曲阜의 孔子廟와 淮夷의 옛 땅 구경 濮州에 黃巢戰場 -崔孤雲의 문장
산서성(158행~)	山西省界地 魏帝明堂 王閔의 後悔處

	毛仲의 遺跡 潼關-高琳 西安門-陳叔寶 岐山-古公移都處
섬서성(183행~)	留壩縣-留侯廟
감숙성(185행~)	伏羲卦臺 太極山 仙芝跡-安西都護 兵馬使 萬里城 石碓山- 谷渾牧場
사천성(209행~)	浪江, 牛心山-黑齒常之 波斯人들-衣冠이 비슷하니 高麗族인듯 楊子江上流-苗族 鄭年
광서성(225행~)	番禺 三席塔
호남성(231행~)	舜陵을 瞻謁 福建土話 天妣宮殿-路允迪 儒佛仙 三教儀式-小連大連 金行成
호북성(249행~)	南陽諸葛亮-東夷를操心던 말 高隨高唐 兩戰爭 處處演劇-乙支文德 蓋蘇文 英武 長江물 唐朝에 移舍해온 우리 七十萬戶-차취없다
강서성(257행~)	瀋陽湖 -匯夷가 周厲王을 征伐하든곳. 魏仲을 大破
안휘성(261행~)	江州-康戩의 善政偉蹟 視察 泗洲城 掛劍臺
강소성(271행~)	夏后楚王 召集한 國際大會에 우리 大使 왔든 곳 踏破하시고 新亭을 求景
절강성(279행~)	浙江省 杭州

이상의 진행 방향과 답사 지명은 실제로는 의천대사가 거쳐 갔던 경로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의천이 택한 경로로 알려진 하남성에서 절강성 항주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계 반대방향으로 중국 대륙을 최대한 넓게 횡단하여 한 바퀴 도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자의 오해가 빚어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작자는 의천대사가 거쳐 갔으리라 짐작되는 경로를 잘못 추정하고 판단했다기보다는 의천의 경로와 관계없이 작자가 조사했던 『사고전서』 가운데 우리 역사와 관련 있는 유적지와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하고, 각 지역을 의천이 거쳐 갔다는 가정 하에 보았음직한 광경, 있었음직한 광경을 최대한의 역사적,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때로는 작자 자신이 직접 보았던 광경과 느낌을 삽입하여 놓기도 하였다.

(가) 185 三星館 지나가니 甘肅省인데 186 伏羲卦臺 太極山 歡迎하는듯
187 收誌局訪問하고 勝跡 探하니 188 平壤머런 仙芝跡 第一에 屈指

(나) 237 新羅明神 事蹟과 前後에 相應 238 某處의 強盜神과 正히 反對
니 239 神이란 무엇인가 卽人心影子 240 二千萬 착한 心理 그 原因이다

(가)는 감숙성에서 수지국을 방문했다는 것인데 이는 신문사 기자 신분인 작자의 발자취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나)는 호남성에서 天妣宮殿이 도처에 있음을 보고서 新羅明臣의 사적과 앞뒤 상응한다는 평가를 내린 대목인데, 이는 “某處의 強盜神” 곧 강도같은 일체의 행위와 정 반대가 된다는 것으로 “二千萬” 우리 동포의 착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일부 지역은 의천의 행적과 관련 없이 필자가 실제로 답사했던 지명을 거명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고려사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을 교차 서술하여 한민족 역사의 편린을 의천의 행적에 최대한 수렴하고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형상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통 한학에 조예가 깊고 강한 민족의식으로 항일투쟁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역사서를 만들어 민족교육을 시키려 했던 작가의 역량을 최대한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재야의 역사가로서, 민족의식이 넘쳐나는 작자의 열정과 일제하 망명객이라는 작자의 현재적 조건으로 인해 때로는 역사적 기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과장하여 표출하는 경향도 있음이 감지된다. 그리고 의천의 행적과 현재의 자신의 감정을 뒤섞어 놓은 점도 작품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 이 작품이 냉철한 역사 교본 창가로서 기능하기에는 과도한 우국의식이 넘쳐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작자의 실천적 항일투쟁의 정신을 떠올리면, 이 작품은 당시 항일지식인의 민족적 사명을 다한 작품으로서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본고는 김문세의 장편 창가 <고려사가>를 발굴,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가의 생애, 창작 배경, 내용구조와 문체적 특성, 내용 서술상의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대신 이 작품이 당시에 가졌던 사회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마무리를 삼기로 한다.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이 작품은 1920년대 후반기에 韓中間의 우호와 협력의 매개체가 된 작품이다. 이 시기 『불교』지를 보면 한중간에 고려사를 복원하기 위해 서신을 교환하고 회합을 가지고 성금을 모금하는 등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사가>의 창작과 소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작품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런 노력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시국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1927년 이후의 기사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항주의 고려사는 고려와

송나라의 우호협력, 일제치하의 조선과 중국의 상호 친선의 교류를 반증하는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의의는 1990년대에 한중수교가 복원되면서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바로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한국의 불교계, 학계가 상호 협력하여 고려사를 복원하는 대사업을 진행하여 최근(2007년) 완공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중교류의 실제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고려사의 문화적 의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제치하 고려사복원사업의 전말과 그 도화선이 되었던 비운의 망명객 김문세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제치하의 망명 인사들의 헌신적인 복원 노력을 함께 고려할 때, 고려사 복원의 의의는 그 의의가 증대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려사 복원에 대한 연구는 고려시대와 현재를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20세기의 전기와 후기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적 담론이 될 것이다. 본고가 한 작가의 작품을 발굴하는 차원을 넘어 이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 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불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권오만, 『개화기시가연구』, 새문사, 1989.
 김병선, 『한국개화기창가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0.
 심재열 역, 『대각국사문집』, 통회사상연구소, 1985.
 이주열, 「<경부철도노래>에 나타난 긍정의식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35집, 2009, 545~574쪽.
 최현식, 「철도창가와 문명의 향방-그 계몽성과 심미성 교육의 한 관점」, 『민족문학사연구』 제43집, 2010, 189~221쪽.
 포지성, 『高麗寺與高麗王子』, 항주대학출판부, 1995.
 포지성, 「고려사와 대각국사 의천」, 『천태학연구』 제8집, 2006, 207~240쪽.

투고일 : 2010년 12월 30일, 심사 : 2011년 1월 17일~ 2월 11일, 게재확정 : 2월 15일

<Abstract>

On the new works of Changga(唱歌),
<Korea-sa-ga(高麗寺歌)>

Kim, Jong-Jin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 new poetic work, titled <Korea-sa-ga (高麗寺歌)>(a song of Korea temple) written by Kim, Mun-Se(金文世. 1894~1926). The Korea-sa(temple) had located at Hangzou in China since the Song(宋) dynasty up to now. This work was published at monthly magazine titled 『Buddhism(佛教)』 on January of 1925. The form of this work is a kind of Korean song, named 'Changga(唱歌)' which was composed by 7 and 5 syllables in one sentence in order. It was said that the first work of Changga is <Song of Kyung-Bu railroad(京釜鐵道歌)>(1908) created by Choi, Nam-Sun(崔南善), a great poet at the period of enlightenment of Korea. But it was said that this work has revealed a naive cognition about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as an affirmative attitude to Japanese Empire. On the contrary to this, <Korea-sa-ga> has a characteristic as a resistance literature, because of the writer Kim, Mun-se had been acted as a resister in 1919~1926. So it can be certainly said that <Korea-sa-ga> can be called as a new works which had signific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the literature and resistance movement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key words : Kim Mun-Se(金文世), <Korea-sa-ga>(高麗寺歌), <Korea-sa>(高麗寺), Changga(唱歌), <Song of Kyung-Bu railroad(京釜鐵道歌)>

부록 <高麗寺歌>

*원문에는 앞구 후구(7:5)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구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의미과약을 위하여 띄어쓰기를 하였다.

*잡지에는 이 작품과 함께 「현재중국항주서호에 있는 고려사」(사진), 「고려사에 봉안한 고려문종대왕상」(사진), 「昔時의 高麗寺」(모사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괄호표시(「」)는 대화 지문으로 원문에 표기되어 있다.

*구수는 필자가 편의를 위해 붙인 것이다.

- 1 南高峰 奇麗하고 箕泉맑은데
- 2 檀葉이 長茂하니 그림 속 靑邱
- 3 乾脈出震 天君이 下臨하섯고
- 4 西湖十里 水明堂 廣潤하도다
- 5 靑龍이 蜿蜒하고 白虎踞蹲에
- 6 綵雲이 瓏玲하니 分명한 仙境
- 7 「뭇노니 牛背上에 吹笛童子야
- 8 저 건너 便松柏 새 處한 움집은
- 9 杼氏의 所有이며 무삼 生意로
- 10 속절업시 山景만 汚損하난지」
- 11 이 말 드른 童子는 저새 던지고
- 12 쟁근 낮 큰 소래로 왈각 性내며
- 13 「버릇업다 客이여 精神차리오
- 14 그 집 歷史 仔細히 告命하리다
- 15 太極肇判 創世時 乾坤有意로
- 16 大荒東에 白頭山 鍾靈했스니
- 17 白衣仙 萬世鴻基 盤石가튼데

- 18 無窮花 燻發하니 그네의 多福
- 19 土地가 膏沃하니 或稱 嬴土國
- 20 五金이 薈萃하니 或稱 金銀國
- 21 鹽鐵이 至賤하니 或은 海王國
- 22 體格이 健壯하니 或稱 大人國
- 23 性質이 仁厚하니 或稱 君子國
- 24 文皮가 特産되니 或稱 寶貨國
- 25 禮讓으로 立國에 或稱 禮義國
- 26 仙人이 出沒하매 或稱 蓬萊國
- 27 綿繡珠玉 如山에 或稱 財寶國
- 28 億品 萬彙 豐國을 或은 稱하나
- 29 千山이 高秀하고 百水明麗에
- 30 其實인즉 分명한 高麗國이라
- 31 아름다운 그 나라 江山의 風景
- 32 사람마다 一游를 平生 願일세
- 33 太皇은 太白山에 降臨하섯고
- 34 河伯은 夷國河에 定位하시매
- 35 倪文僖神山瀛州 노래 했스며
- 36 董圭峰 第一江山 號 울녓스니
- 37 箕子의 東渡함이 偶然 아나오
- 38 仲尼의 뭇가심은 仙緣업섯다
- 39 軒轅氏는 風山에 修道하였고
- 40 陶唐氏는 禹夷에 別墅두섯다
- 41 樂而忘返 共工氏 東夷에 同化
- 42 過門不入 夏禹도 靑丘는 游覽
- 43 不遠萬里 西佛은 金剛에 臨코
- 44 故鄉머린 建族은 右道에 섰다
- 45 楊康功 다녀와서 海中仙되니

- 46 險波에 出使키를 서로 다룬다
- 47 거룩할사 高麗國 古代文明은
- 48 兩全球 六大洲에 燦爛했스니
- 49 蒼頡이 蟲獸字를 敢히 못섰고
- 50 蔚宗輩 妄陋하나 讚許處있다
- 51 日本은 幾百年間 博士 顧騁코
- 52 大金은 全盛時나 醫士마짓네
- 53 吳越王 錢俶이는 書籍 求하고
- 54 宋朝에 諸名士는 그림배 왔다
- 55 肅愼氏의 模範隼 陳庭에 陳列
- 56 平壤製 強한 良弓 劉堂에 寶傳
- 57 純潔한 白硯紙는 풀솜 製造요
- 58 堅牢한 狼毫筆은 當代 쓰섯네
- 59 有名한 猛順州에 張強力墨은
- 60 外國사람 찍거서 親友間餽贈
- 61 神巧한 三韓貨의 술넝 붓채는
- 62 지나人的 讚美詩 몇 百篇이다
- 63 中古의 風景文明 이러하기에
- 64 이웃나라 供向이 北極가트니
- 65 個人的 도라감이 저자갓했고
- 66 國使들의 往來가 頻頻하였다
- 67 文宗大王 第四子 義天大士는
- 68 釋迦如來 高蹤을 본바드시샤
- 69 富貴를 하직하고 山間苦行에
- 70 宋山川 遊覽코자 報聘使되야
- 71 禮成江 나루 우에 배를 타시고
- 72 三千里 冒險으로 航海하시니
- 73 이 消息을 探聞한 宋國上下는

- 74 誠惶誠恐 奔走히 歡迎準備에
- 75 不日成之한 淮南 高麗亭館은
- 76 朱欄畫閣 建築이 宏壯하였고
- 77 數萬兩銀에 達한 款待費用에
- 78 人民의 負擔金이 莫重했스니
- 79 貧者는 逃亡하고 富者怨할새
- 80 鄭姓裔의 抗議가 激烈하였다
- 81 麗使 一行 寧波에 下陸하시니
- 82 伴館의 遠迎으로 鼓樂三通에
- 83 八人輜 各히 타고 西下하시니
- 84 汴河우에 벽돌 城 宋國의 서울
- 85 平濶한 乾元門 밧 오난 길목에
- 86 훌륭하게 歡迎터 닥그섯는데
- 87 紅布帳 太陽빛에 번쩍거리고
- 88 十七旗 바람결에 휘날니도다
- 89 조개 씹질 遮日에 눈이 시울고
- 90 歡迎鼓樂 喧天에 귀가 막막타
- 91 端雅하신 宋神宗 冕冠 龍袍로
- 92 道傍에 待立하야 麗使 마즐새
- 93 閣門식혀 揖手로 案内하시매
- 94 그 뒤 짜라 市街를 두루 살피니
- 95 집집마다 懸燈에 太平노래요
- 96 곳곳마다 結綵에 歡迎춤이라
- 97 崇德殿 드러가서 禮式 마치고
- 98 長春殿 內宴에서 酬酌 七行盃
- 99 穀茶에 半醉하여 辭令吐하니
- 100 白山눕하 鴨河가 솟으시는데
- 101 식직한 樽俎間에 折衝의 才操

- 102 子産이 復活한들 엇지 敵할가
- 103 同文館 나오는 길 多多從土는
- 104 率居의 粉油水素 妙한 法으로
- 105 二千年 넷 都邑을 暫間 그러니
- 106 보는이 括目하고 듯는 이 吐舌
- 107 宋朝庭에 가득찬 陋儒拙臣들
- 108 遠夷의 輕華之心 惶怯하야서
- 109 隨人 식해 엇보고 書社를 戒嚴
- 110 開闢코자 攘夷疏 連해 올니나
- 111 言忠信行 篤敬한 高麗使의게
- 112 宋帝는 不惑하고 더욱이 款待
- 113 國威를 虛揚코져 南苑에 示射
- 114 一百十一州 名武 다 모엿도다
- 115 壯히 思한 東坡詩 悖謾도 하나
- 116 활 메인 大人國을 감히 짜르랴
- 117 秘書省郎 請하야 文庫閱覽에
- 118 汗牛充棟 豊富な 經史子集은
- 119 三萬六百六十卷 宏壯하시니
- 120 當世에 처음이라 不得不 稱讚
- 121 換父易祖 참아한 鮮卑 契丹은
- 122 아마도 이 文獻에 흐려 싸진듯
- 123 니르는 곳곳마다 王禮로 待接
- 124 猾吏의 依勢恣虐 當世 침이요
- 125 公用書에 宋年號 아니썼스니
- 126 宋史에 高麗入朝 관관 거죽말
- 127 叢林遊覽 請願에 執照어드사
- 128 入駿에 슬길하야 飄然히 타고
- 129 主客郎 次公으로 鄉導삼으샤

- 130 秦趙齊魏韓楚燕 踏破하실새
- 131 汴京城中 홀노선 箕子碑봄애
- 132 柳宗元의 序銘이 惻隱하도다
- 133 玄武門 나아간지 一日程만에
- 134 同鄉사람 王卿의 事蹟當하니
- 135 滎陽에 千里河堤 四州가 誦功
- 136 壽州에 開墾萬頃 後世가 慶祝
- 137 曹元理의 神算을 얼푹 運하니
- 138 萬餘戶의 玉食을 넉넉케 했다
- 139 다다르니 杞縣은 東夷族이라
- 140 禹裔를 封하던일 꿈이 되엿고
- 141 말모라 山東省을 넘어가시니
- 142 楚材秦用 李正己 饒陽王된곳
- 143 曲阜에 孔子廟와 淮夷넷 짜를
- 144 一喜一悲 낫나치 求景하섯다
- 145 牛鳴聲이 들리니 夷君왔든곳
- 146 管仲霸跡 차즈니 徐伯의 敎訓
- 147 濮州에 黃巢戰場 親히발브니
- 148 人血로 洗城튼일 오소름친다
- 149 殘忍이 이가트나 尺檄에 屈服
- 150 崔孤雲의 文章을 可히 알리랴
- 151 渤海對岸 新羅*(塞에 土대신木) 命名된 原因
- 152 歷史家의 研究할 重要한 資料
- 153 關係깊흔 幽冀州 참아 못 向코
- 154 斷腸處를 避하야 勝地擇할새
- 155 黃河水에 배져어 溯上하시니
- 156 遠遠히 보이는 곳 臨漳縣이라
- 157 玄菟人 高洋이 齊帝된터를

- 158 瞬息間에 지내니 山西省界地
- 159 大同城 놉히삿고 姓곳친 魏帝
- 160 明堂이 헐려스니 可憐하도다
- 161 豐面大額 高肇碑 古今에 名筆
- 162 壓石陵墓魏文后 昭君이 遺恐
- 163 늘흔퇴글 날니는 夏縣별판을
- 164 黃夷와 夏后相의 싸우든 戰場
- 165 글지어 弔問하고 西向하시니
- 166 해보다도 머다는 長安갓잡다
- 167 王闕의 後悔處에 篋篋曲 듯고
- 168 忠儀思禮 毛仲의 遺跡우섯다
- 169 險한 潼關 高琳이 能히 礎스니
- 170 東國武藝 아니면 못되었슬것
- 171 西安門맛 禾黍속 雙童무덤은
- 172 土人이 가르쳐서 陳叔寶란다
- 173 東陵瓜로 것무덤 致奠드리니
- 174 唐勝跡 보고심흔 生覺업섯다
- 175 立時로 하직하고 길 써나심에
- 176 岐山이 압 막으니 古公移都處
- 177 混夷가 周를칠 旆 番至하되
- 178 周昌은 門을 걸고 悔過修德에
- 179 天時人事 諒解코 浩然히 撤兵
- 180 混夷의 人道正義 古今에 第一
- 181 隴右에 高藏遺民 慰로하시고
- 182 男甥의 同室操戈 우르섯도다
- 183 留壩縣다다르니 留侯廟 宏壯
- 184 滄海土 남의일에 헛 勞力이다
- 185 三星館 지나가니 甘肅省인대

- 186 伏羲卦臺 太極山 歡迎하는듯
- 187 收誌局訪問하고 勝跡 探하니
- 188 平壤버린 仙芝跡 第一에 屈指
- 189 安西都護 四鎮에 兵馬使되야
- 190 果下馬 檀弓으로 豕突無前에
- 191 一舉에 小邪律을 平定하고서
- 192 大食國 七十二國 降服바든곳
- 193 悠江 배에 客이되야 北流하시니
- 194 혹혹히 부는 朔風 사람을 襲擊
- 195 처음으로 기운찬 萬里城보니
- 196 東北나라 天下를 翫고잇는듯
- 197 尙今것 流傳하는 孟姜의 曲調
- 198 秦人의 哀怨心情 代表로 描寫
- 199 民意를 強姦에불 審判當하니
- 200 萬世一系 큰 慾心 寤安우스라
- 201 分명한 倍達兩國 넛 都城보고
- 202 石硤山 넘어가니 谷渾牧場에
- 203 天開一鑑 萬古鏡 靑靑한 擘畚
- 204 波去波來 感古淚 절노 흘렀다
- 205 그네들은 先祖적 鬪牆을 追悔
- 206 화살로 團體幸福 比喻했것만
- 207 血汗靑驄吐藩에 쌌앗것스니
- 208 三百歲 短한 歷年 可惜도하다
- 209 말머리 急히돌려 四川向하니
- 210 李謫仙 蜀路難을 다시웁엇다
- 211 泯江건너 牛心山 剝落된 碑는
- 212 黑齒常之助의 戰勝한 紀績
- 213 義慈王墓 써나서 吐蕃破하고

- 214 縵布로 儼뎡은일 쏘아색엿다
- 215 甘肅夏境 단니는 波斯人들은
- 216 衣冠이 비슷하니 高麗族인듯
- 217 山窮水盡 도라서니 楊子江上流
- 218 仙槎를 어더타고 順下하신다
- 219 雲貴境窮한 山谷 不祥한 苗族
- 220 朝鮮서 一敗한 後 復興못하니
- 221 異國에 盡忠하나 重賦鞭撻뿐
- 222 依賴心 虛事인줄 네가 아느냐
- 223 滇池에 鍊習하는 水軍의 혜염
- 224 廣漢詩로 鄭年을 思慕하는듯
- 225 廣西로 紛來하는 安南 꾸쫘기
- 226 野蠻族의 媿行을 表示함이라
- 227 番禺에 北燕後裔 다시만나고
- 228 三席塔을 나서서 南溟을 眺望
- 229 印度王子 孤舟로 還國한 處니
- 230 天竺서 支那됨을 처음아랴다
- 231 湖南省에 舜陵을 瞻謁한 後에
- 232 二守雙忠 兩廟를 欽慕로 視察
- 233 福建土話 吾國에 漢音과 略同
- 234 閩商百人 紹介로 取해옴인듯
- 235 到處에 盤鬱하신 天妣宮殿은
- 236 路允迪을 保護한 그 恩澤이라
- 237 新羅明神 事蹟과 前後에 相應
- 238 某處의 強盜神과 正히 反對니
- 239 神이란 무엇인가 卽人心影子
- 240 二千萬 착한 心理 그 原因이다
- 241 書館은 高麗板本 重價로 買售

- 242 禪家は 安樂圖를 眞諦로 保藏
- 243 國俗을 一瞥하니 모다치레 쏜
- 244 文勝其質 浩嘆을 안을수업다
- 245 萬人送鼓舞作歌 行喪하는 樣
- 246 儒佛仙 三教儀式 混用하시니
- 247 帳속에 花杖집흔 作歌의 喪主
- 248 小連大連 金行成 慚愧하리라
- 249 湖北省 다다르니 南陽諸葛亮
- 250 東夷를 操心던말 귀에 錚錚타
- 251 高隨高唐 兩戰爭 處處演劇에
- 252 乙支文德 蓋蘇文 英武를 發揮
- 253 晝夜로 가고가는 이 長江물은
- 254 蒸汽로 還源할 새 잇스런마는
- 255 唐朝에 移舍해은 우리 七十萬戶
- 256 통통디증귀린 자취업고나
- 257 江西省의 瀋陽湖 너른벌판은
- 258 匯夷가 周厲王을 征伐하든곳
- 259 虢仲을 大破하고 勝鼓치스나
- 260 江漢詩 못지음이 萬古에 遺恨
- 261 安徽省 江州 岬에 龍首龜底碑
- 262 康戩의 善政偉蹟 視察하시고
- 263 洪澤湖 건너가니 泗洲城이라
- 264 千山이 拜舞하고 百川이 朝歸
- 265 아름다운 넛 徐都 처음지나니
- 266 始盛漸衰 우리게 切實한 儆戒
- 267 土人이 재촉하는 어서라는말
- 268 漢文으로 못쓰니 分明한 遺傳
- 269 城北北便掛劔臺 ぬ히샷스니

- 270 延陵季子賢明를 紀念함니라
- 271 第一山 넘어가서 江蘇省보니
- 272 八千年後 새 運氣 分明하도다
- 273 夏后楚王 召集한 國際大會에
- 274 우리 大使 왔든곳 踏破하시교
- 275 新亭을 求景하니 愁雲이 자욱
- 276 王導가 周顛를 責한곳이라
- 277 運河에 龍舟타고 내려오실새
- 278 寒山寺 쇠북소리 淒冷히 波傳
- 279 拱宸橋下陸하니 浙江省 杭州
- 280 胥山에 올라서서 三島보섯다
- 281 錢塘潮白란넝 넘어도 偏狹
- 282 撻尸三百父兄讐 快雪했스나
- 283 宗國覆滅良心에 未安할지라
- 284 屬鏤劍 當然하니 尙今무슨恨
- 285 正氣廟에 凜凜한 褚遂良遺像
- 286 唐帝五指罔佞을 切諫하심은
- 287 不逞說함부루쓴 그의 報怨에
- 288 피눈물 뿌릴 것을 미리알미라
- 289 眞鑑無染 諸僧과 龍華永明寺
- 290 그 古跡 찾든일은 太煩키 不題
- 291 單說로 晋水師를 訪問하시샤
- 292 心印으로 相交코 同留一年에
- 293 集註禪經 著述을 贊助하시며
- 294 思親隆師蘭盆을 創作하시니
- 295 鮮漢에 流行하는 오랜 그 風俗
- 296 有名한 이 兩土에 비롯함이라
- 297 무려져가는결과 허울머슨중

- 298 大慈大悲 憫忙히 生覺하시교
- 299 奮然히 歸國하야 上계 奏하샤
- 300 內帑을 거우려서 損賜하시매
- 301 杭州大刹 瞬息間 소사났스니
- 302 四十餘畝 建設이 씩씩도 한테
- 303 大雄殿閣 雲霄에 높히 소삿고
- 304 十尋鍾 數十里를 振動하더라
- 305 高麗金經 간직한 輪藏機械는
- 306 모든절中 新發明 神便도 하다
- 307 天王閣 妙應閣 千佛閣이며
- 308 七祖堂 伽藍堂 碧鮮閣들은
- 309 龍鳳麒麟雕刻이 아조 妙하니
- 310 神仙制作 아니면 匠石숨씨요
- 311 香積房아 滌池는 周圍丈餘에
- 312 文石으로 얹스니 五色이 玲瓏
- 313 高麗寺 높흔 名號 傳播가 되고
- 314 宋寧宗金字大額 쭈렷하도다
- 315 高麗는 大覺師의 道場을 思慕
- 316 이곳을 永世不忘 記念하였다
- 317 忠宣王은 大臣을 보내여 重修
- 318 元公은 負郭良田 寄附했스니
- 319 燦爛한 새 丹青은 西湖들 生色
- 320 豊富에 添한 寺産 三江이 不竭
- 321 寺僧은 功德主께 報恩키 爲해
- 322 楞伽室前 啓聖殿 높히 지으니
- 323 莊嚴이 大雄殿에 彷彿하신데
- 324 義天父王 文宗을 奉安하섯다
- 325 妙空如通 無際는 法統니어서

326 菩薩의 平等主義 巡廻로 講演
 327 聽衆은 龍까지 가득차섯고
 328 進香供物 道路에 끈치안앗다
 329 淸乾隆은 여러번 이곳을 探勝
 330 절일홈 法雲寺로 곳치인 後에
 331 輿匪의 蹂躪에 兵燹 當하니
 332 긴 歷史 오랜절이 怯灰에 一空
 333 이웃사람 터갈다 壁에 치운채
 334 사흘에 주림업시 怪히 녀길제
 335 東坡의 指教맞고 救出되여서
 336 自己財産 다하야 草創했스니
 337 兩次나 蘇氏神力 感謝커니와
 338 遠夷五害 上躋를 連上튼 者로
 339 도리어 伽藍堂에 護衛神됨은
 340 竺乾教因果應報 어김업도다
 341 一千九百十九年 新氣運 타서
 342 申睨觀上額으로 看板달니매
 343 그 名을 恢復하니 곳져집이나
 344 外樣이 흉측하고 안이거즈니
 345 당신가치 不關한 行人의게도
 346 空然한 無禮를 그져맞아요」
 347 空海에 가쳐잇는 외로운몸이
 348 반가운 故鄉遺跡 처음드르니
 349 꿈인가 生時인가 다름박질로
 350 나난 듯이 柴門을 열치고 드니
 351 절은 아직 俗人이 寓居하였고
 352 獐惡한 外國개는 몹시짓는다
 353 階下에 拜謁하고 鞠躬立하야

354 上下四方仔細히 두루살피니
 355 高麗皇位한 向에 숨쳐섯는데
 356 외인 便 적은 床위 龍爐에 檀香
 357 내줄기 실과가치 간으럿시나
 358 萬道金光 變할 재 잇스리로다
 359 千年祖上 萬里外 처음뵈오니
 360 질거올데 설음은 어인일인가
 361 十景致 찬구름에 漸漸 못치고
 362 數峰閣 슬픈바람 사람 傷한다
 363 눈물이 쓰다져서 銅駝짓기고
 364 馮城哭 절노되니 山谷이 慰響
 365 해는 마춤 지는데 압길이머니
 366 사랑하는 本寺를 不得不 하직
 367 한아바님 安寧히 留하십소서
 368 千勞萬苦 괴름을 참으십시오
 369 제가나가 이 情景 廣告하오면
 370 우리 族屬 다 歸依 施主하리니
 371 넷터에 華嚴高殿 다시세우고
 372 不遷之位 永遠히 奉安하리다
 373 慕化의 무거운짐 어깨에 메고
 374 操心으로 山門뵈 물러나오니
 375 어두운 재 險한길 寸步를 難行
 376 언제나 저언덕위 우리집으로(完)